

보육교사 양성교육에 대한 교육생 평가와 정책과제

향후 우리 나라 보육정책의 방향은 보육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방향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 바로 보육교사교육원으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 2급 교사에 대한 자질 문제와 더불어 이들의 수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육교사교육원은 2000년 1월 현재 전국에 83개소로 이 중 49개소는 대학 부설이고, 34개소는 민간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본고에서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교육생의 평가를 통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李尙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1. 머리말

지난 1995년부터 보육사업 확충 3개년계획이 실시되어 완료됨에 따라 양적으로 확충된 보육시설과 유치원, 선교원 등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하는 시설들간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보육시설

의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격이 미달되는 인력이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고, 대형화와 현대화된 보육시설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배치됨에 따라 이에 위협을 느낀 유치원쪽에서 보육시설 인력의 자질을 문제시하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그리고 4년제나 2년제 대학에서 보육과 관련한 학과들이 신설됨에 따라 보육교사

인력에 있어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초과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 2급 교사에 대한 자질 문제와 더불어 이들의 수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게 되었고,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교육생의 평가를 통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 현황

1) 교육실적

보육교사 2급을 배출하는 보육교사교육원은 2000년 1월 현재 전국에 83개소로 이 중 49개소는 대학 부설이고, 34개소는 민간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 27개소, 경기도에 12개 교육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인천이 4개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92년 보육교

사교육원이 생긴 이래 1999년까지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수는 총 100,842명으로 집계되었다(표 1 참조). 시설 유형별로는 대학부설과 민간운영 교육원 졸업자의 비율이 약 반반 정도이다. 교육원 소재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67,640명으로 졸업자의 약 2/3가 밀집되어 있다. 1992년이래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수는 계속 증가하여 1996년 15,000명을 넘은 후 계속 15,000~16,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 9월 현재 보육시설에 취업 중인 2급 보육교사 수가 18,965명인데, 1년에 16,000여 명의 신규 2급 보육교사가 배출되고 있다. 이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로서 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고 하여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생의 특성

(1) 교육생의 일반적 특성

대학부설 및 민간운영 6개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보건사회

표 1. 시설유형 및 지역별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수

(단위: 명)

구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계	
전체	4,389	7,191	11,966	14,926	15,371	15,905	15,182	15,911	100,842	
시설 유형	대학부설	1,724	4,285	5,220	7,242	7,733	8,171	7,972	8,969	51,316
	민간운영	2,665	2,906	6,746	7,684	7,638	7,735	7,210	6,942	49,526
지역	서울	3,155	4,513	5,977	7,075	7,133	7,205	5,156	6,533	46,746
	경기	339	393	1,971	2,619	2,975	2,968	2,999	2,679	16,943
	인천	92	101	403	579	642	700	881	553	3,951
	기타	803	2,184	3,615	4,653	4,621	5,032	6,146	6,146	33,202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3.

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교육생은 여자가 99.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27.8세였고, 결혼상태는 미혼 59.6%, 기혼 39.8%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과반수가 넘는 52.1%이었고, 전문대학 졸업 22.4%, 대학 이상 22.7%이었다. 직업이 있다는 비율은 35.9%이었는데, 직업은 보조교사가 17.8%로 가장 많았다.

대학부설 교육원 교육생의 학력이 민간운영 교육원 교육생 학력보다 높고, 오후반보다 오전 및 야간반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상태는 오전반에는 기혼, 야간반에는 미혼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생의 직업을 보면 민간운영 교육원의 교육생이 현재 직업을 가진 경우가 43.2%로 대학부설 교육원 교육생 23.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보조교사는 민간운영 교육원 교육생이 21.2%로 대학부설 교육원 교육생 12.2%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가진 경우는 야간반이 68.7%인데, 특히 보조교사의 비율이 35%이었다. 또한 교육생의 42.6%가 아동보육 및 교육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생의 적성이 매우 잘 맞는다(13.2%), 비교적 잘 맞는다(59.0%)는 경우가 72.2%로 나타나 비교적 적성에 부합하였으나, 그저 그렇다(20.9%), 본인들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5.3%)는 경우도 2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원 수료후 계획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생들은 교육원을 수료한 후에 당장 또는 나중에 보육시설에 취

업하거나 놀이방을 개원하겠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8.4%였다. 즉, 보육교사로 경력을 쌓고 난 후에 놀이방을 개원하겠다는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육원 수료후 바로 보육시설에 취업을 하겠다는 25.5%, 나중에 보육시설에 취업하겠다는 경우는 8.7%, 수료후 바로 놀이방을 개원하겠다는 경우는 5.9%였다. 그 이외에는 배운 것을 자녀양육에 활용(6.9%)하거나 뚜렷한 계획이 없다(4.7%)는 경우들이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바로 놀이방 개원을 희망하고 있고, 학력이 낮을수록 경력을 쌓고 놀이방을 개원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생들 중에서 88.4%가 보육시설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보육교사 자격을 획득하는 목적이 취업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와 보육교사의 공급이 직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므로 보육교사의 수급문제를 감안하여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원생수를 조절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3. 보육교사 양성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1)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평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보면, 보육실습을 제외하고 4개분야 교과목의 수는 총 37개이다. 분야별로는 소양분야 2과목, 영유아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10과목,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관련 분야 15과목, 아동복지관련

일반이론 10과목이다. 분야별 교육시간은 소양분야 50시간, 보육 기초이론 및 보육실무 각 300시간, 아동복지 일반이론 150시간, 보육실습 200시간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이나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30% 범위 안에서 교육과목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수시간도 교육훈련시설장이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과과목수에 대한 평가

보육교사교육원 교과과목수에 대한 교육생의 평가는 72.9%가 교과과목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다, 많다를 5점 척도화한 평균점수도 4.07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30과목 정도가 1년이라는 기간내에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현재의 교과과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교육생들이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을 1년 6개월 내지 2년으로 연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교육기간을 1년으로 한다면 현재의 교과과

목수를 적당한 수준으로 줄여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교과별 시간에 대한 평가

교과목은 소양분야, 보육 및 아동복지 이론분야, 실기분야 및 실습으로 나누어지므로 소양분야를 제외하고 이론, 실기 및 실습으로 나누어 교육생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교과 중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의 시간배정은 서울시 소재 교육원과 기타 소재 교육원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서울시 소재 및 기타 지역 소재 교육원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시간에 대하여 교육생의 48.3%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는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척도화하면 평균 3.51점이다. 보육 및 아동복지 이론시간이 262시간인 서울시와 350시간인 그 이외의 지역의 교육생은 서울시 교육생들이 이론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6.8%이고, 그 이외 지역 교육생은 35.7%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점 척도도 서울 3.37점, 기타 지역 3.61점으로 기타 지역 교육생이 많다고

표 2. 교육환경별 교육생의 교과과목수에 대한 평가

(단위: %)

	너무 많음	많음	적절함	부족함	합계(N)	평균점수 ¹⁾
전 체	37.3	35.6	24.1	3.0	100.0(856)	4.07

주: 1)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많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이상현·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표 3. 지역별 이론시간 및 실기시간과 실습시간에 대한 평가 백분율 분포

(단위: %)

구분	너무 많음	많음	적절함	부족함	매우 부족함	계(N)	평균점수 ¹⁾
이론시간	13.6	34.7	40.5	10.9	0.3	100.0(859)	3.51
서울(262시간)	8.3	32.5	46.8	12.1	0.3	100.0(372)	3.37
기타(350시간)	17.7	36.3	35.7	10.1	0.2	100.0(487)	3.61
실기시간	1.3	4.4	29.6	53.8	10.9	100.0(855)	2.31
서울(472시간)	1.6	5.7	32.3	52.2	8.2	100.0(368)	2.40
기타(300시간)	1.0	3.5	27.5	55.0	12.9	100.0(487)	2.25
실습시간	2.8	9.9	64.7	20.7	1.9	100.0(829)	2.91

주: 1) 평균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많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이상현·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pp.260~262에서 재구성.

느끼는 비율이 높다.

두 번째로 실기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생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기시간이 많다는 경우는 5.7%에 불과한 반면에, 부족하다는 경우는 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의 평균도 2.31점으로 나타났다. 실기시간 역시 특기교육을 포함하여 472시간인 서울시와 300시간인 그 외의 지역과는 172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교육생의 평가에 있어서 그 차이는 이론시간에서처럼 크지는 않았다. 서울시 교육원의 교육생들이 실기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3%이고, 그 외의 지역 교육생은 27.5%이었으며, 부족하다는 비율은 각각 60.4%, 67.9%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5점 척도도 서울 2.40점, 기타 지역 2.25점이다. 이처럼 실기시간의 차이가 크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의 평가는 차이가 크지 않고,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기시간을 배정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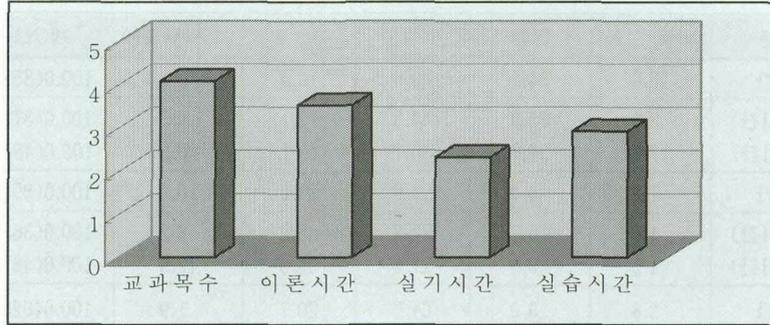
세 번째로 200시간의 실습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생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응답자의 64.7%가 실습시간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많다는 경우는 12.7%이었으며, 부족하다는 경우는 22.6%이었다.

이상과 같은 평가를 총괄하여 보면 교육생은 200시간의 실습시간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고, 교과목수와 이론 시간이 많으며, 실기시간을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과목수가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그림 1 참조).

2) 교육과정에 대한 보육교사 전문성 평가

현재와 같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거쳐 보육교사가 된다면, 보육교

그림 1.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 평가 총괄



주: 3점이 적절하다는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많다고 생각하는 것임.
 자료: 서문희·이상현·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표 4. 교육원 특성별 보육교사 전문성 확보에 대한 평가 백분율 분포

(단위: %)

	매우 충분	비교적 충분	그저 그렇다	비교적 부족	매우 부족	무응답	합계(N)
전 체	2.2	27.2	21.5	40.4	8.0	0.7	100.0(859)
대 학 부 설	1.8	32.2	20.2	37.1	8.7	-	100.0(326)
단체 및 개인	2.4	24.2	22.3	42.4	7.7	1.0	100.0(533)

자료: 서문희·이상현·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사로서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교육원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매우 충분하다 2.2%, 비교적 충분하다 27.2%로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교육생은 전체의 29.4%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4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행의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한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전문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교육환경 특성별로 나누어보면, 대학부설 교육원의 교육생들이 현행 1년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34.0%로 민간운영 교육원의 교육생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임용기준 및 교육생 평가

교육원의 교수는 전임교수와 외래교수로 나누어진다. 전임교수는 5명 이상을 원칙으

표 5. 교육원 특성별 교수수준 평가 백분율 분포

(단위: %)

	너무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합계(N)	평균점수 ¹⁾
전 체	4.2	37.0	53.8	4.1	0.9	100.0(849)	3.40
대 학 부 설	5.6	45.8	44.0	3.1	1.5	100.0(323)	3.51
단 체 및 개 인	3.4	31.6	59.9	4.8	0.3	100.0(526)	3.33

주: 1) 평균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이상현·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로 하고 교육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50명마다 2인씩 증원하고, 자격은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관련 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로서 해당분야의 유경험자이다. 2000년도부터는 전임으로 석사 이상의 예능 및 특기 전공자를 1인 인정하도록 하였다. 외래교수는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관련 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학식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및 영유아 보육학 강의 경력자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임교수요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교육인원 100명마다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이 상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수수준에 대해 교육생들은 교육원 교수수준이 높다는 경우는 41.2%를 차지하였고, 낮다는 경우는 단지 5.0%에 불과하였으며, 보통이라는 경우가 과반수가 넘는 53.8%로 나타났다. 교육원의 교수수준에 대한 교육생의 인식을 교육

원 특성별로 보면, 대학부설 교육원(3.51점)이 민간운영 교육원(3.33점)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육교사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보육교사교육원 설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강의실, 실기실습실, 도서실, 보육시설, 교수연구실 및 사무실 이 외에도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원의 모집 대상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이고, 수강료는 사립전문대학 1년 과정 등록금(입학금 포함) 50%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교재비를 제외하고 88만원을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원이 교재비를 포함하여 100만원에 약간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다. 반 편성은 오전반, 오후반 및 야간반 편성이 가능하다. 반당 학생수 규모는 1999년까지는 100명이었으나, 2000년부터는 50~80명으로 하되 강의는 합반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율동 및 놀이 지도 등 실기는 10~50명

단위로 훈련하도록 하고 있다.

1)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평가

교육생들은 교육원의 교육시설환경에 대하여 교육시설환경이 좋다는 경우는 22.5%이고, 나쁘다는 경우는 28.7%이었으며, 보통이라는 경우는 48.8%로 나타나 좋다는 응답자보다는 나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교육시설환경을 5점 척도로 점수화한 평균은 2.89점이다. 교육생들의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교육원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학부설 교육원 교육생이 민간운영 교육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부설 교육원 교육생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비에 대한 평가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생이 1년 동안 1,00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교재비를 포함하여 드는 비용은 총 100만원에 약간 미달하는데, 이와 같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생들은 대체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4.6%). 비싸다는 응답은 22.1%였고, 저렴하다는 경우는 13.3%이었으며, 5점 척도로 환산하면 2.90점으로 적절하다는 3.0점에 근접하고 있다.

3) 반당학생수에 대한 평가

교육생은 100명인 반당학생수에 대해 대부분인 82.8%가 많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6%였고, 부

표 6. 교육원 특성별 교육시설환경에 대한 평가 백분율 분포

(단위: %)

	너무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합계(N)	평균점수 ¹⁾
전 체	3.5	19.0	48.8	20.6	8.1	100.0(853)	2.89
대 학 부 설	0.3	13.8	49.2	25.2	11.5	100.0(325)	2.66
단 체 및 개 인	5.5	22.2	48.5	17.8	-	100.0(528)	3.03

주: 1) 평균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시설환경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이상현·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표 7. 교육비에 대한 평가 백분율 분포

(단위: %)

	너무 비쌌	비쌌	적당함	저렴함	매우 저렴함	합계(N)	평균점수 ¹⁾
백 분 율	2.3	19.8	64.6	12.4	0.9	100.0(854)	2.90

주: 1) 평균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비가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이상현·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표 8. 반당학생수에 대한 평가 백분율 분포

(단위: %)

	너무 많음	많음	적절함	적음	매우 적음	합계(N)	평균점수 ¹⁾
백분율	44.9	37.9	16.6	0.5	0.1	100.0(858)	1.73

주: 1) 평균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반당학생수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이상헌·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표 9. 교육원 특성별 취업상담지도에 대한 평가 백분율 분포

(단위: %)

	많음	적절함	부족함	매우 부족함	합계(N)	평균점수 ¹⁾
전체	1.8	21.8	52.5	23.9	100.0(788)	2.02
대학부설	1.3	13.2	54.1	31.4	100.0(318)	1.84
단체 및 개인	2.1	27.7	51.5	18.7	100.0(470)	2.13

주: 1) 평균점수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상담지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서문희·이상헌·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가정보육시설과 보육인력 자격관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족하다는 경우는 단지 0.6%에 불과하였다. 5점 척도화된 평균 점수는 1.73점이었다. 이는 교육생들이 반당학생수를 줄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1999년까지 반당 100명인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부터 반당 50~80명 수준으로 줄여야 했음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취업상담지도에 대한 평가

교육생들이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상담지도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23.6%에 불과한 반면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자의 3/4 이상으로서 대부분의 교육원생이 취업상담지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 특성별로는 대학부설 교육원(85.5%)이 민간운영 교육원(70.2%)보다 15% 포인트 이상이나 취업상담지도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개선방안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향후 보육정책의 방향이다. 향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은 보육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방향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 바로 보육교사교육원이다. 왜냐하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을 양성하고 있고, 전

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출신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원에서 배출한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를 일선의 일부 시설장들이나 유사직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유아교육계에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강의 듣고 있는 교육생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생들 스스로가 보육교사직이 적성에 맞다고 응답한 경우는 72.2%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여 보육교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생을 선발할 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생들은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9.4%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교과과목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72.9%인 반면에,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는 경우가 26.1%였으며, 특히 실기시간이 부족하다는 경우가 6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지침이 1년간 지정한 교과목들을 강의 하도록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교육생들이 교과목을 완전히 습득하기에는 절대시간이 부족하거나 교과목수가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실기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정한 교과목들을 교육생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1년이라는 교육기간을 적어도 1년 6개월 내지 2년으로 늘리고, 교육생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실기시간을 보다 늘려야 할 것이다.

셋째, 1999년 현재 보육교사교육원의 반당 학생수를 100명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82.8%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0년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에 따라 반당학생수가 50~80명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생들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후 향후 계획을 보면, 보육시설(어린이집과 놀이방)에 종사하겠다는 비율이 76.7%이고, 특히 바로 보육시설에 취업을 하거나 놀이방을 개원하겠다는 경우가 31.4%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생 본인들 스스로가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8.4%에 달하는 현실에서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기간을 늘려 일정기간을 보육현장에서 실습을 거쳐 수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놀이방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내지 3년간 보육현장에서의 경험자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